



글쓰기

대학원진학

<대학원에 입학하는 법>

 심심한 마이클 패러데이

2022.03.08 ㄹ 21 ㄴ 19781



"대학원은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

"그거 노예 아님?"

"불이 꺼지지 않는 학교의 야간 등대"

대학원에 관해 여러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싶다는 건,

이 모든 걸 능가할만한 강렬한 동기(Motivation)가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 글을 읽기 전에, 본인이 정말 동기가 부여돼 있는지 되묻기 바랍니다.

이쪽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여러분은 세계와 경쟁하는 사람일 것이고,

해외에서 박사 과정까지 밟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학부터 필수가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동기 부여 받은 상태일 겁니다.

정말 원해서 가는 대학원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억지로 등 떠밀려 오는 곳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대학원을 인생의 꽃을 피우는 촉매로 활용하시고, 부디 최후의 길로써 도피하는 곳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단지 취업을 바라다면 이 글에서 올바른 길로 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1. 내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를 압축하라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인기 많은 곳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경쟁률이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하자니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 내 인생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선택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면에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나는 어떤 것을 공부하고 싶은가?"

요즘 세대에게는 꽤나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이 글에 당도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고민해 본 상태라 가정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루 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 환경이 있고, 성장 환경이 있고, 친구가 있고, 기타 등등 인생을 살면서 본인 선택에 영향을 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를 예로 들면, 아버지가 의학 계열에 종사하신 덕분에 생물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맙게도 따뜻한 성장 환경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더 자세한 경험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반드시

성장 환경에서 지금에 이르게 된 경험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회상해 보시고, 순간의 유혹이나 상황이 내뺀는 가지를 쳐내면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주제를 줄이고 압축하면 생각보다 답이 명쾌해 집니다.



2.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떠올려라

원하는 랩실을 골랐으면, 다음은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순수한 마음에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고 마구 어필하면서 교수 바짓가랑이를 잡는 것도 때로는 좋은 설득 방법입니다. 삼고초려도 좋습니다. 학문이라는 건 어느 정도 순수한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도 받아주는 랩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연구, 더 나아가 본인 진로를 설계해선 안 됩니다.

철저한 전략으로 승부를 봐야 떨어지더라도 후회 없지 않을까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원하는 연구실을 지원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연구실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학점만 높은 걸 우선으로 쳐 주는 랩실이 있고, 기타 인턴 경력이나 면접(또는 인터뷰)

과정에서의 열정 등을 높이 사는 랩실도 있습니다. 요는 '능력'입니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곰곰이 고민해 보니 몇 가지로 압축됐습니다.

- 남들 앞에서 내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
- 진득하게 붙어 앉아 문제를 고
- 때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의견을 덧붙여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능력



- 내 생각을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대학원 연구에 필요한 기본 전공 지식

이 정도였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대학원 연구에 필요한 기본 전공 지식(즉, 학점)은 일정 수준 이상만 충족하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학부생이 습득한 지식이야 새발의 피, 수박 겉핥기일테니까요.

그렇기에 학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인 성실도와 자격을 파악하는 도구이지 결정적인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이 최근 저서-'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샌델은 시험 점수를 기본 자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뽑을 것인가?

답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동아리의 회장이고, 새로 들어온 신입 지원자 중에 부원을 뽑으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뽑을까요? 성적? 동아리에서 요구하는 활동 이력?

저라면 앞서 언급된 능력은 기본으로만 보고,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지원자는 동일선상에서 볼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지원자를 뽑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은 일종의 커뮤니티이고, 사람 간 소통과 의사표현이 오가는 자리이니까요.

불필요하게 같이 있으면 불쾌할

준은 철저히,

제 주관과 직관에 의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야기가 끝도 없이 길어지겠지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우리는 생각보다 비이성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걸 굉장히 신뢰한다는 겁니다.

대기업 면접관들에게 설문을 돌린 결과
대다수는 적성 검사나 시험 점수가 꼭 필요하다고 답하지 않았지만,
면접은 꼭 필요하다고 답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직접 보고 얘기를 나눠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가면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동물이고 거짓말로 본인을 위감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선발은 크게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문 형사가 범죄자의 거짓말을 정확하게 짚을 확률은 불과 55%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죠.
(출처 : 타인의 해석-말콤 글래드웰)

이러한 오류에 봉착해 있음에도 우리는 본능으로 사람을 뽑습니다.
그렇게 진화해 왔다고 보는 게 정확할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곳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하면 들 수 있는가를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도 긴 글이지만, 그 방법에 관해 써 보겠습니다.



(1) 능력을 말하는 전략

앞서 연구실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능력을 언급했습니다.

성장과정에서 그것들을 갖췄다고 주장할만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걸 구체적으로, 믿을만하게 풀어놓는 게 전부입니다. 말은 참 쉽죠.

예시를 들겠습니다.

"저는 학부 시절 뮤지컬 동아리에서 극본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과,

"저는 학부 시절 뮤지컬 동아리에서 극본을 담당하면서 글 쓰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시나리오를 쓰고 부원들과 이를 검토하면서 어떻게 하면 극적인 내용을 담을까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 과학자로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도 글을 일목요연하게 쓰고

글로써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때의 경험이

지금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는 문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요는,

1. 내 경험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2.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언급하고



초점을 상대방에게 맞춰 주세요. 그들은 어떤 인재가 필요한가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2) 겸손의 전략

자기소개에서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연구에는 실패가 그림자처럼 쫓아붙기 마련이고, 그런 암귀를 털어내면서
고민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게 연구자의 올바른 자세니까요.

실제로 유명한 학자나 대가들의 학회 연설을 들어보면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OO님, XX 학회장님, 기타 제 연설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연구나 성과는 크게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20년간 연구를 하면서 약간이나마
학계에 기여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겸손은 가장 훌륭한 전략입니다.

상대방의 경계를 풀고, 여러 공격으로부터 본인을 방어하는 확실한 수단입니다.

당연히 연구실에 컨택 이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뷰할 때 겸손하게 행동하겠지만,
그럼에도 왜 겸손하게 행동해야



더군다나 교수는 연구에 쫓기고 시간 관리를 극한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겸손입니다.

당연히 교수가 나를 위해 면접이나 인터뷰 시간을 내 줄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꼭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바랍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 마디가 합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입니다.

"엄마, 나 시험 100점 받았으니까 XX 사줘"

우리는 무언가를 바랄 때 과거를 들먹이며 상대방에게 요구합니다.

과거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을 때, 이를 언급하면서 선물 사달라고 부모를 조르던

옛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또는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계산할 때, 과거에 내가 사줬던

기억을 언급하면서 지갑을 열게 요구했던 최근을 떠올려 봅시다.

한편으로 그런 과거에 의존하면서도, 우리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교수와의 면접에서 "나는 과거에 이렇게나 공부를 잘했으니, 여기에 합당한 학생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수상 이력이나 인턴 경력 등을 들먹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좋은 설득 방법이 아닙니다.

설득은 결정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관망하는 자율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제 3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듯 사실관계를 담담하게, 겸손하게 말하는 게 최고의 설득입니다.

자기소개는 본인을 자랑하는 글이 아닙니다.

결정 권한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합니다.

대학원생 정도의 나이가 됐다면, 본인 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선행을 말하는 전략

"엄마, 나 그때 XX 사줬을 때 진짜 재밌고 행복했어"

앞서 말한 의사결정의 자율성과 연결되는데,

좋은 설득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상대방의 선행을 말하면서 마치 상대방을 성인 군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면접 전, 또는 컨택 메일을 보낼 때 상대방의 업적이나 성과를 과하게 언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업적이나 성과, 또는 다루고 있는 연구분야가 본인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불러 일으켰는지

그래서 내가 꿈과 열정을 갖고 이곳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이런 식의 서술이 해당 내용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선행을 간단하게 언급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어떤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선행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요구사항을 받은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긍정적으로요.

결정권한은 상대에게 있지만, 결국은 내가 바라는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선행을 말하는 전략입니



우여곡절 끝에 연구실에 들어간다고 해도, 선배나 박사님들께 사랑받는 건 꽤나 어렵습니다.
저 역시 혼나고 갖은 소리를 들어가며 연구실에 적응하는 기간을 거쳤고, 이런 내용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에 적용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공통되는 해결책이 하나 있다면,
그건 상대방의 수고를 어떻게든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꼭 시험 100점을 맞아야 부모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방법을 압니다.
바로 집안일입니다.

집안일은 부모의 노력과 수고가 꽤나 많이 들어가는 일이고,
이를 도와드려 부모가 체감할 정도로 많이 편해진다면
그때는 점수 없이도 당당하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구실에서도 최선을 다해 이론과 실험 기법을 습득해
선배, 박사님의 연구 수고를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맡고 있는 잡일부터 시작해 작은 연구 과제, 카테고리를 뺏어오면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잘 못하겠죠.
무언가를 맡기기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도 그것을 극복하고 그들의 수고를 덜어준다면
어느새 연구실의 한 일원이 돼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수와 컨택을 하는 데서도 내가 연구실의 어떤 수고들을 덜어줄 수 있는지에 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잡일이겠죠.
내가 처음부터 어떤 연구를 하고
그렇구나 하고 맙니다.



글이 꽤 길어졌는데,
대학원 입학 전부터 글을 쓰고 취준생들의 자기소개를를 탐색하면서 수입을 얻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때의 경험이 글을 길게 풀어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보잘 것 없는 내용이지만 살다보면 가끔 쓸모가 있나 봅니다.

내용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1. 대학원 입학은 어느 정도 각오가 필요하다.
2. 일단 가고 싶은 연구실을 정했다면 어떻게 본인을 어필할지 고민하라.
3. 합격은 성적 순이 아니다.
4. 나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라.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149
비공감 0

댓글 21

 댓글쓰기

비관적인 그레이스 호퍼

2022.03.08



정말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댓글 1개](#) 댓글 쓰기  8  0 심심한 마이클 패러데이 (작성자)

2022.03.08



저야말로 정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  0

산만한 밀턴 프리드먼

2022.03.08



정말 잘읽었습니다.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0개 댓글 쓰기

  3  0

공허한 한나 아렌트

2022.03.09



와드 남깁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댓글 0개 댓글 쓰기

  3  0

이기적인 플라톤

2022.03.09



이런 글이 왜 이제서야... 스크랩 좋아요 댓글 다 박고 갑니다

댓글 0개 댓글 쓰기

  4  0

조급한 르네 데카르트

2022.03.09



어두운세상, 한 줄기 빛



2022.03.09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2  0

언짢은 갈릴레오 갈릴레이



2022.03.09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괜찮으시면 짧은 질문하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직 대학원입학 전인 4학년학부생인데 석사만 마치고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취업을 하고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연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직무들은 흥미가 당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교수나 연구를 목표로 하지 않는 대학원진학은 무의미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처럼 그저 "일"을 처리하는 직무가 아닌 전문성+실무 둘 다 잡고 싶은 마음가짐으로 석사마치고 취업을 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대댓글 1개](#) 대댓글 쓰기  4  0 심심한 마이클 패러데이 (작성자)

2022.03.09

제 글이 마치 연구가 목적이 아니면 진학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발칙한 주장으로 쓰여 미안합니다. 어디까지나 그만한 각오가 필요하다는 의도로 쓰인 것이니 오해 없길 바랍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석사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남들보다 꼭 본인에게 몇 번이고 되묻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1. 본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바랍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곳은 석사 학위만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인가요? 그곳에 다니는 사람들의 평균 스펙은 어떻게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2. 결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제가 글에서 여러 전략을 얘기했는데, 자칫 제가 쓴 내용만이 '올바른' 전략으로 이해될까봐 두렵습니다. 영국의 총리외교 정책 자문을 역임한 로렌스 프리드먼은 저서 '전략의 역사'에서 전략은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올바른 전략은 없고, 상황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는 더 나은 전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걸 가장 잘 아는 건 결정권자인 본인이기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정말 본인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질문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일뿐입니다.

비록 답은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4  0

멍때리는 마리 쿼리

2022.03.09

김박사넷에서 본 글 중 가장 좋은 글은 ...



2022.03.10

과찬이십니다. 제가 인생을 오래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포닥 분들의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분들은 제가 언급한 내용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실천에 옮기며 살고 있습니다.

👍 6 💬 0

열정적인 척척박사



2022.03.11

감사합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 1 💬 0

젊은 마르셀 프루스트



2022.03.13

많은 자극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감사를 표하면 그 감사한 마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대댓글 1개](#) 대댓글 쓰기

🔔 👍 1 💬 0

심심한 마이클 패러데이 (작성자)



2022.03.14

허허 댓글이 너무 훈훈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네요...글이라는 건 적당히 욕도 먹어야 하는 법인데(...?) 다 음 글은 욕 먹을 여지를 남기면서 써 보겠습니다...고맙습니다.

👍 1 💬 0

재밌는 마리 퀴리



2022.03.14

마지막에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글에서 언급하셨던 겸손의 예시까지 잘 보여주셨네요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 2 💬 0

부지런한 피보나치



2022.03.16

글 자체를 잘 쓰시네요. 알고있던 사실들은 다시한번 곱씹었고 무심코 지나갔던 사실들은 가슴속에 저며드는군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 0

서랍에 담아두고 몇번씩 읽으면서 고민을 한 끝에 더욱 단단해진 제 자신이 보이네요.
혼자 끄끄 앓는 힘든 시기에 좋은 글을 보고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진짜 사나이 올리는 글인데 제 표현력이 부족하네요.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 1 🗨️ 0

밝은 레프 톨스토이



2022.03.27

자신을 객관화하라.. 학부 졸업을 앞두고 취업문과 대학원의 문 등등 많은 문들을 앞에 두고 선택을 고민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문장인듯 싶습니다. 절대적 기준에서 좋은 혹 올바른 선택은 없지만 자신의 방향성에 대한 나은 전략을 세워야 함을 느끼고 갑니다. 무심코 들어와 무심코 살면 안되겠다고 다짐하고 나가게 하는 글 인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 1 🗨️ 0

열정적인 게오르크 헤겔



2022.04.06

진짜 좋은글이네요. 까먹은 마인드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 1 🗨️ 0

똑똑한 공자



2022.04.07

김박사넷 시작한지 얼마안되었는데 이런 좋은 글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스크랩하고 두고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너무 감사합니다.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 1 🗨️ 0

놀란 프란츠 카프카



2022.04.17

초딩 때 니꿈이 뭐니 해서 과학자요 했는데 그리되 버렸네 *^^*...
꿈 꾸는 자 원하는 걸 해라. 대학원을 갔더라도 꼭 그 전공으로 안 살아도 된다.
세상 모른다...*^^* 안철수가 의대 가서 대통령 꿈꾸게 될 줄 알았겠어?
원래 세상은 모르는 거다. 공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뭘 그리 복잡게 생각해...

대댓글 0개 대댓글 쓰기

🔔 🍵 0 🗨️ 0

✍️ 댓글쓰기



☐ 익명으로 게시

등록

Impact Forum

전체보기

1. <대학원에 입학하는 법>

 심심한 마이클 패러데이 149  21  19781

2. 무엇인가를 관두고 싶어하는 분에게

 열정적인 스티븐 호킹 53  17  8797

3. 우리 지도교수님..

 정직한 존 스튜어트 밀 46  20  10963

4. [일반랩 vs 대가랩] 연구 및 논문비교 (과학자를 꿈꾸는 분들에게)

 후회하는 가브리엘 마르케스 119  19  26343

5. 박사과정생과 프레스 박사들을 위한 연구제안서 쓰는 팁

 착한 피보나치 97  13  11893

6. 지도교수와 잘 맞는다는것

 춤추는 쇠렌 키르케고르 59  18  17373

7. 우리 교수님 솔직히 너무 좋음

 속편한 에이다 러브레이스 130  37  34439

8. 대학원 생활이 힘든 이유들

국내 대학원 재학 중 해외인턴

👍 0 🗨️ 0 💬 3 👁 478

2022.03.08

문득 김박사넷 유저들의 정치성향이 궁금하다

👍 4 🗨️ 14 💬 19 👁 912

2022.03.08

건축공학은 석박사 나와서 뭘 하나요?

👍 0 🗨️ 0 💬 6 👁 563

2022.03.08

저널 파인더 acceptance rate

👍 0 🗨️ 0 💬 6 👁 369

2022.03.08

유니스트 대학원 수준

👍 0 🗨️ 0 💬 23 👁 5066

2022.03.08

🏆 <대학원에 입학하는 법>

👍 149 🗨️ 0 💬 21 👁 19781

2022.03.08

대학원 컨택 질문

👍 0 🗨️ 0 💬 0 👁 401

2022.03.08

교수님들은 성적을 채점하실 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차이를 두시나요?

👍 0 🗨️ 0 💬 6 👁 631

2022.03.08

수직배향 셀 판매하는 곳

👍 0 🗨️ 0 💬 1 👁 153

2022.03.08

나노 기술이란?

👍 0 🗨️ 1 💬 2 👁 436

2022.03.08

연대, 고대 배터리 계약학과

👍 0 🗨️ 0 💬 0 👁 617

2022.03.08

최근 인기글

교수 창업의 문제와 겸직을 금하는 이유

👍 23

Nature, Science 본지

석사 10개월 차... 배부른 소리로 들리겠지만 매일이 전쟁 같은 삶이네요

👍 8

내 석사생활 참 많은일들이 있었네요^^	👍 5
자퇴를 해보신 분들, 후회하시나요?	👍 4
이거 짧은 쏜대려나요	👍 3
이번에 포항공대(포스텍) 철강 에너지 소재 대학원 지원하신 분 계신가요?	👍 2
지방대생의 고민	👍 2

월간 인기글

교수 임용 후 오는 번아웃	👍 58
임팩트 포럼에 올라간 "연구자로 살길 잘했다" 라는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대략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 ...	👍 50
우리 지도교수님..	👍 46
어떤 연구실을 가야하는가 (1): 사실 학벌은 중요하지 않다.	👍 39
길었다...	👍 34
지도 교수는 반드시 인성이 바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 32
김박사넷에서 계속해서 보이는 우문우답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29
지도교수의 중요성	👍 27
교수 창업의 문제와 견직을 금하는 이유	👍 23
대학원 연구실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 21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 보세요!



김박사넷 홈으로

김박사넷 플러스 홈으로

기업회원 홈으로

논문알리미 BETA

서베이

공지사항

제휴 문의



학과 등록요청

이용약관

기업회원 이용약관

김박사넷 익명로직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